

# 한국의 이슬람

권지윤<sup>1</sup>

## I 시작하는 말

2001년 미국의 ‘9/11’ 사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이슬람에 집중시켰다. 그 후로 계속되는 일부 이슬람 급진원리주의자들의 자살폭탄테러와 그에 대한 서구 언론의 보도는 무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집중시키고, 모든 무슬림들이 폭력적이라는 과장된 평가를 하게하여,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 (Islamophobia)을 퍼트렸다. 이러한 영향은 2007년 7월 한국의 단기 선교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되는 사건을 그 시발점으로 하여 이슬람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이 증폭되면서, 2008-2009년 일부 한국의 기독교 단체와 언론매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무슬림의 수적증가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단일문화의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이슬람이 1950년대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종교적, 사회적, 인구학적으로 한국사회에 혼란을 줄 정도로, 혹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양산할 정도의 변화와 움직임이 발견되거나,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한국의 이슬람이 이슬람 공포증을 불러일으켜 사회문제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 무슬림들이 본격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1990년대 이후로 유입된 이주 무슬림 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소수였던 무슬림 공동체가 단일문화사회의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정도로 무슬림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이슬람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수적 증

---

1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햇볼트리니티 한국이슬람 연구소 상임연구원

가와 더불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성장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계가 이슬람에 대한 궁금증과 사회적, 종교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사회처럼 비 무슬림국가이지만, 비 무슬림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슬림의 수적증가와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으로 인해 이슬람이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비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비 무슬림 사회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현상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무슬림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무슬림들의 영향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자리매김해왔는지, 한국 이슬람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무슬림들의 형성과정과 그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여, 한국무슬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무슬림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이슬람의 역사

### 1. 이슬람의 태동기

이슬람은 기록에 의하면 7세기에 발흥되어 무슬림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함마드 사후에 그 세력에 대한 확장이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한반도에는 9세기경에 남방항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한반도 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이슬람 중앙회에서는 밝히고 있다. 주로 이들은 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이 중국 대륙과 접촉해 그 영향으로 무슬림 상인들이 통일신라까지 흘러들어와 그들의 문화와 교역상품을 전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한반도의 역사적 정황, 특히 중국과 많은 교역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그 후로 고려 시대 즉 11세기 초에는 대식(大食)으로 알려진 이슬람 제국의 상인들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로 고려조정과 교역을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이들 중 일부는 고려에 정착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민족적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여, 수도 계성을 중심으로 그들 공동체 내에서 예궁이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을 두었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 정확한 규모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려가 몽골 원 제국의 간섭을 받을 때 몽골 관리로서 회회인 이라고 불리는 투르크계 위구르 무슬림들이 고려에 들어와 당시 교역 행정업무를 대부분 관장하였다는 사실이다.<sup>2</sup>

또한 조선 초에는 무슬림들이 세종 재위기에 궁중의 공식행사에 그들의 대표나 종교지도자들이 초청되어 임금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통일신라 이후로 조선 초까지 끊임없이 무슬림들이 한반도와 접촉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슬람의 이러한 접촉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는 못했다. 특별히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조선왕조의 새로운 건국이념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이슬람 문화와 종교가 배척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한동안 지속되었다.<sup>3</sup>

192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에서 무슬림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당시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무슬림 공동체는 극히 소수였는데, 모두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반도까지 유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무슬림 유입의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만주에 머물렀던 중국계 또는 한국계 무슬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종교적 영향력은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밀러 그라함(J. Miler Graham)에 따르면, 하이청(Haicheng)에 인구 약 20,000명 중 4분의 1이 무슬림이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서 모였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가 192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에 이주해 온 무슬림들로 추측된다.<sup>4</sup> 두 번째 유입의 이유는 소련치하의 소수 민족으로 살던 투르크계 무슬림들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만주를 거쳐 망명해온 무슬림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무슬림들은 1920년대 이후 한반도에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국 민중들로 부터는 특별한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소수 무슬림들은 한국 민중들 보다는 일본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러일 전쟁당시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여 일본 총독부의 비호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당시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은 1945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더불어 대부분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sup>6</sup>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한반도에서 무슬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 다만 간헐적인

2 김영남, "이주 무슬림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선교적 고찰" 『이슬람 선교포럼』, 한국선교신학회, 2009, 23.

3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서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8), 2.

4 A.Y. Kim, *The Muslim Presence in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Evangelical Missiology*, a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ugust 2003, 276.

5 김영남, "일본의 이슬람"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이슬람 연구 4권, 한국이슬람 연구소, 101-102.

6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3.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간헐적인 접촉으로 현재의 무슬림들이 이 땅 한 반도에 정착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슬림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 2. 이슬람의 발아기 (1950-1960)

1950년-1960년대는 한반도에 무슬림 공동체가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50년 이전 한반도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간헐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이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한국역사 속에 이슬람은 그들의 공동체가 한반도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간다. 1950년 한국은 역사 속에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이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다국적 군사들 가운데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미국다음으로 대규모의 여단 병력을 파견했고 지금도 터키의 참전용사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해 공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한반도 땅에 이슬람이라는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기도 하였다. 이들 중 최초로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은 당시 터키 제6사단 사령부의 이맘(Imam)이었던 압둘가루프 카이이스마일 오울루(Abdulgafur Karaismailolu)였는데, 그의 노력으로 한국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었다고 한국이슬람 중앙회는 전하고 있다.<sup>7</sup> 이 당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터키 군 이맘을 도왔던 한국인 무슬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김진규와 김유도라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 특히 김진규는 1938년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만주로 갔다가 신실한 중국무슬림을 만나 1955년 무슬림으로 회심한 사람이다. 당시 유교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sup>8</sup> 이러한 이유로 1955년 이후 김진규와 김유도는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성하고 터키군 이맘을 도와 이슬람 전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회는 1955년 10월 터키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야전용 천막3동을 설치해 이를 임시성원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1956년에는 “청진학원”을 세워 이슬람 교리교육과 중등교육을 한국소년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sup>9</sup>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한반도에 무슬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7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5.

8 A.Y. Kim, 277.

9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6.

1960년대에 한국무슬림들은 좀 더 조직적으로 한국에 이슬람 전파활동을 펼치는 한편, 이슬람 국가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적극성을 보인다. 특별히 김진규는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 성지순례에 참가함으로써 한국무슬림 최초로 성지순례자가 되기도 했다.<sup>10</sup> 이슬람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1962년 2월에는 서울 중앙성원 원로 이맘인 술레이만 이행래를 비롯한 한국 학생 11명을 6개월간 말레이시아 ‘클랑이슬람 대학’으로 초청받아 이슬람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중 여학생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sup>11</sup> 1965년에는 현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전신인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67년 6월 격월간지 ‘코리아 이슬람 헤럴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했다는 사실인데, ‘코리안 이슬람 헤럴드’에 의하면, 한국이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종교지도자 사이드 무함마드 자밀(Saiyd Muhammad Jamil)이 1966년 10월 한국에 약 40일간 내한해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슬람 전파와 국내 무슬림 교육에 힘써서 약 90여명이 이슬람 개종자가 있었으며, 이슬람에 대해서 YMCA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당시의 기독교 학교였던 명지대학교에서 ‘What is Islam?’이라는 제목으로 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 결과 명지 무슬림 연합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sup>12</sup>

1950-1960년대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 조직을 성장시키고 확립시키는 조직적인 시도들이 있었으며, 국외적으로 각 이슬람 국가들과의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 이슬람 지도자들을 국내로 유입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국내 이슬람 조직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이슬람의 발아기라 할 수 있다.

### 3. 이슬람의 정착기(1970-1980)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슬림 성원건립의 계획이 1970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의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사유지 1,500평을 중앙성원 건립용 부지로 하사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1976년 5월에는 세계17개 이슬람 국가로부터 장관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50명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개원식이 거행되었고 “소수무

---

10 Ibid., 7.

11 Ibid.,

12 A.Y. Kim, 279.

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선교”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고 한국이슬람 중앙회는 밝히고 있다.<sup>13</sup> 게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한국내의 건설경기의 빠른 성장은 국내 건설 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부추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마침 중동 이슬람 국가의 건설 붐과 맞물려 수많은 인력이 아랍-이슬람 국가로 진출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아랍-이슬람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해외건설 파견자들에게 중앙 성원은 이슬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때까지만 해도 3,700명이던 무슬림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이슬람 중앙회는 기록하고 있다.<sup>14</sup>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힘들지만, 이때 당시의 국내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이슬람국가라는 종교, 문화의 특성상 현지 건설인력 파견자들의 무슬림으로의 개종은 개종자의 진실성이나 그 깊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영향의 단면으로 1976년 6월에는 중앙 성원 이슬람 센터에 ‘아랍어 연수원’이 개설되어 무슬림과 비 무슬림을 대상으로 아랍어 강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출판사업도 활발했는데, 특별히 KMF(The Korea Muslim Federation)를 중심으로 많은 세미나와 출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How to Be a Muslim(1976)’, ‘Guide to Prayer(1976)’, ‘Polygamy in Islamic Law(1978)’, ‘Jihad in Islam(1986)’이 있으며,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무슬림 학자들을 중심으로 성 꾸란 의미의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인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용선(1990), 최영길(1989)이 있다.<sup>15</sup> 한편, 이슬람을 전파하기위한 활동들 ‘다와(da’wa)’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이 1977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슬람 학생회’이다. 이들 학생회는 이 시기까지 이슬람이 생소하게 여겨졌던 각 대학에서 순회강연을 통해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노력했으며, 주한 이슬람국 대사관들의 지원을 받아 매년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이슬람 문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슬람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2009년 현재에는 그 규모를 더욱 성장시켜 진행되기도 한다. 1983년부터는 ‘세계무슬림 청년협의회(WYMY,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의 지원으로 매년 한국에서 WYMY 캠프가 개최되었다.<sup>16</sup>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한국이슬람의 정착기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이슬

13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10-11.

14 Ibid., 11.

15 Ibid., 11-12.; A.Y. Kim, 284.

16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13.

람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전파되었다는 것 즉 이슬람 전파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는 것과 더불어 이슬람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1976년 서울 중앙 성원 개원을 계기로 이슬람은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76년 말에는 압둘라힘 김명환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 무슬림들이 시내에 임시 예배실을 설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1978년에는 경기도 쌍용리 마을 주민들이 압둘라 전득린의 인도로 이슬람에 개종해 비닐하우스 임시 예배실에서 이슬람을 교육받기도 하였으며, 1986년에는 압둘라쉬드 염보섭을 중심으로 전주지역에서도 이슬람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유럽에서 많은 예들을 발견되기도 하지만 1986년 후세인 유창식이 사재로 기독교 교회를 매입해 이를 이슬람 성원으로 개조함으로써 서울근교 안양에 그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울산과 제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이슬람 전파활동이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sup>17</sup>

#### 4. 이슬람의 변화기 (1990이후 오늘날까지)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이슬람은 이전의 발전양상과 다르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 이슬람 안에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이전에 한국 사회내에서 발견된 이슬람의 성장과는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양상들이 외국의 무슬림 성장방향과 일치되는 면모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사회 내에서 이슬람을 살펴 볼 때 주목할 만한 변화양상을 크게 두 가지 정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사회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던 무슬림 안에서의 세대교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슬람 중앙회의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로 갑작스럽게 1세대 원로 무슬림들의 공백이 발생하여 한국무슬림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동- 이슬람 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세대 무슬림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슬람 국가에서 유학경험을 가진 2세대 무슬림 지도자들이 한국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 안에 교육과 연구 활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의 예는 1997년 8월에 개최된 대규모 국제 이슬람 세미나를 들 수 있는데, ‘세계 무슬림연맹(Rabita)’,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지원으로 “동아시아 이슬람 -역사와 문

---

17 Ibid., 13-14.

화적 조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10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미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 이슬람 문화연구소(KIIC)’의 개원식도 함께 갖게 되었다.<sup>18</sup> 연구소 소속 학자12명은 2001년 “이슬람”이라는 이름의 공동저서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때마침 발발한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1990년 이후 한국이슬람의 다양하고 빠른 변화양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사회내에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한국의 시대적 사회상황 경제적 발전과 맞물려, 이슬람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 즉 무슬림들이 한국사회내로 유입되었다는 것인데, 이들의 수가 소수가 아닌 다수이며, 이러한 유입은 한국무슬림 공동체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입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현재의 유럽이나 미국 사회내에서의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이나 변화 또는 적응과 부조화가 한국 사회내에서도 같은 이슈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무슬림의 유형과 조직, 정체성을 다루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그 동안 소수로 성장을 해온 순수한 한국무슬림 사회는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분위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 근로자들로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출신이어서, 한국내에 무슬림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넘는 이들 외국 무슬림 근로자들은 서울, 부산, 전주, 경기도 광주 및 안양에 있는 5개의 마스지드에 북적거렸고, 이들로 인해서 파주 마스지드, 안산 이슬람 센터, 포천 송우리 이슬람 센터 등 전국에 약 60여개의 외국 무슬림 근로자들을 위한 예배소 및 이슬람 센터가 건립되었다. 2005년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9개의 이슬람 성원과 60여개의 임시예배소에서 한국이슬람 중앙회 추산으로 15만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추측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이슬람 관련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 최근의 연구자료 중, 2007

---

18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17, 한국이슬람 문화연구소는 1997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는 무슬림 공동체 내부에서 개원한 연구소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슬람 연구소(1992) 현재 햇빛트리니티 한국이슬람 연구소(2007)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개원한 연구소로서 1992년에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깊은 연구 과제를 안고 개원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19 Ibid., 19.



년 한국 이슬람 관련 학자들의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문화변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속 코스림(Koslim)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대 주제로 진행된 연구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1차 연구단은 1차 년도의 연구과제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에서 남아시아계, 동남아시아계, 중앙아시아계, 비 아랍 중동계, 아랍계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자료를 만들었으며, 그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위의 다섯 권역 출신 이주 무슬림은 104,42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 910,149의 1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sup>20</sup> “2008년 행정안전부 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국적 취득자와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포함)은 891,391명(여성46%, 남성54%)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437,727(49%), 국제결혼 이주 및 자녀는 202,392(22.7%), 그리고 유학생, 주재원 외교관등이 171,104명으로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22.8%, 서남아가 3.7%인데 동남아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 그리고 서남아 지역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몰디브 등이 이슬람 국가들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보면, 외국인 무슬림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한국내 무슬림 수는 급격한 증가를 거쳐 약 13-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 III 한국무슬림의 유형

#### 1. 현대 한국무슬림의 유형화

1990년대를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무슬림 사회는 그 이전과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전통적인 한국 무슬림 사회, 다시 말해서 기존의 한국무슬림 공동체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세대 무슬림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무슬림 국가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2세대 무슬림 지도자들이 무슬림 공동체 내에 자리 잡으면서 국내외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변화의 요인은 199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 특히 IT분야의 발전과 맞물려 외국 무슬림 노동자들의 대량

20 조희선, 김대성 외3명,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27권 2호, 2008, 85-88. 김영남, “이주 무슬림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선교적 고찰”, 24. 재인용

21 Ibid.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 무슬림 공동체 안에 주목할 만한 수적 증가와 다문화적인 변화양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 무슬림의 유형은 크게, 한국 역사와 함께 자리매김하여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무슬림 공동체와, 이주 무슬림들이 기존의 한국 무슬림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어 형성된 외국인 무슬림 공동체로 볼 수 있다.

### 1.1 전통적인 한국무슬림 공동체 유형

첫 번째 유형인 한국 무슬림 공동체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자리매김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1세대 무슬림들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다국적군인 터키군 이맘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된 이슬람을 접하거나, 중국에서 이슬람을 접하여 한국에 이슬람을 뿌리내리려고 노력한 무슬림 공동체였다. 이들 노력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2세대 무슬림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슬람 전문가들로서, 이슬람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1세대 무슬림들보다 더욱 열정적인 무슬림 공동체를 말한다.

한국의 무슬림 공동체는 한국 이슬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세대 무슬림 공동체에서 2세대 무슬림 공동체로 교체되면서, 갑작스런 1세대 무슬림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잠시의 혼란을 겪었으나, 눈에 띄는 혼란을 겪거나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1세대와 2세대 간에 격차로 인해 한국내 이슬람 문화와 종교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던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국 무슬림 공동체는 1세대와 2세대 간에 자연스런 교체와 발전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무슬림 공동체의 1세대와 2세대의 자연스런 교체와는 다르게 한국사회의 무슬림 공동체보다 더 많은 수적증가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1세대와 2세대 무슬림 공동체간의 유럽문화 수용도와 적응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18-19세기 유럽의 식민정책과 함께 유입된 무슬림 공동체가 1950년대 가족이민으로 이어졌고, 1970년대 'guest worker'라는 형태로 산업이민으로 이어졌으며, 1990년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슬람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더 많은 경제적, 교육적 기회가 있는 땅, 유럽으로 계속적인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무슬림 유입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는 외부적으로 무슬림 공동체와 기존의 유럽시민들 사이

---

22 버나드 루이스는 무슬림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고용의 기회가 있는 땅 유럽으로 이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무슬림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테러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도 이들 유럽 국가로의 무슬림 이민에 큰 몫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Lewis, Bernard, *Europe and Islam*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2007), 89.

에 프랑스 무슬림 폭동(2005년), 영국 7.7 폭탄테러(2005년)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슬림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1세대 무슬림들과 2세대 무슬림들 즉 이민자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무슬림 공동체 사이에 종교적 신념, 정치적 태도, 이슬람 문화에 대한 수용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어 무슬림 공동체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무슬림 공동체가 교체되면서 부정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sup>23</sup>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무슬림 공동체는 오히려 2세대 무슬림들이 자리 잡으면서, 무슬림 공동체의 양적 증가가 주목할 만하지 않았어도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1세대 무슬림에서 2세대로 세대가 넘어오면서 기존의 이슬람 자체의 종교, 문화를 한국사회내로 진입시키는데, 더 많은 저변확보와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이슬람 중앙 성원을 중심으로 2세대 한국 무슬림 공동체는 무슬림 국가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학식을 갖춘 이들이 많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내 이슬람 전파에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비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1세대와 2세대 간의 종교적, 문화적 충돌이나 토속 문화와의 부적응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사회 내에 무슬림들이 외국인 무슬림들이 유입되기 전까지 소수였으며, 대부분 무슬림 공동체는 체계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두 번째 유형에서 이슬람 문화와 기존의 한국문화와의 충돌이나 변화양상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2 한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유형

국내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조희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 출신 국가에 따라 4개의 군, 아랍계, 비 아랍계중동계, 중앙아시아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군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계로 무슬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sup>24</sup>

23 Jorgen S. Nielsen, "Muslim in Europ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hristian Muslim encounter*, ed. Yvonne Yazbeck Haddad & Wadi Zaidan Haddad (Florida: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5), 314-315.

24 조희선, 김대성 외 3,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 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18-1집, 2008, 178.

(표-1) 법무부 통계자료 분석 2006년 국내 체류 무슬림 현황<sup>25</sup>

| 한국 내 무슬림    | 총 체류자   | 합법 체류자 | 불법 체류자 | 불법 체류율 |
|-------------|---------|--------|--------|--------|
| 총 무슬림 체류자   | 104,427 | 74,062 | 30,365 | 36%    |
| 아랍계         | 2,828   | 2,154  | 674    | 23%    |
| 비아랍계(터키,이란) | 3,814   | 2,276  | 1,538  | 40%    |
| 중앙아시아계      | 20,327  | 15,283 | 5,044  | 24%    |
| 남아시아계       | 42,623  | 25,853 | 16,770 | 39%    |
| 동남아시아계      | 34,835  | 28,496 | 6,339  | 18%    |

한국 무슬림 공동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아랍계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최근 유학생의 증가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랍권은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각 국가별 경제수준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아랍권 무슬림들은 출신국 별로 이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일머니로 높은 경제수준을 가진 걸프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유학생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자국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중동지역, 이집트, 수단의 경우 단순 노동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마그립(Maghib) 지역<sup>26</sup>의 경우 유학생 및 자영업자들이 높은 비율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sup>27</sup>

국내 거주 비 아랍중동계 무슬림 공동체는 대부분이 터키와 이란 출신이다. 특별히 터키의 경우 2002년 월드컵 이후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상당수의 유학생과 경제인이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터키 무슬림 들은 1990년대 초반 유학 1세대가 한국으로 유입된 이래 많은 유학생들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의 화이트칼라 계층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상당 수준의 현지화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 아랍중동계의 또 다른 부류의 이란출신 무슬림의 경우 한국보다는 일본의 거주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의정부 일대에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순노동자들인 것이 특징이다.<sup>28</sup>

한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권 무슬림들의 이주가

25 조희선, 김대성 외3명.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89.

26 마그립 지역은 북부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마그립 3개국을 서쪽으로부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지칭하며 확대된 의미인 마그립 5개국을 경우 모리타니아와 리비아까지를 말한다. 한국이슬람 학회총 조희선, 김대성 외 3.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 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179.

27 Ibid.,

28 Ibid.,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권 무슬림 토착민의 비율은 카자흐스탄 55%, 우즈베키스탄 82%, 키르기스스탄 65%이며, 이중 비교적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 교리를 이행하는 무슬림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이다. 이들 중앙아시아계 무슬림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계속적으로 한국 내 농촌 총각 배우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다양한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들 중 중앙아시아 출신 신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총 혼인건수 3만여 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 여성과 혼인한 건수는 314건에 이른다.<sup>29</sup>

한국 이주 무슬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남아시아계 및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이 대부분이며, 집단거주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종교생활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내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 이주민들 대부분이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종교 공동체를 결성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서로에게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지역별로 형성된 이슬람 사원이 출석하는 무슬림들 중 약 90%가 이주 무슬림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30</sup>

## IV. 한국 무슬림의 정체성

### 1.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한국무슬림의 정체성

무슬림의 세계화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신념과 종교를 실천하는 양식에 있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1400여년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각각 토착화와 동화작용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로코 무슬림(Moroccan Muslim), 터키 무슬림(Turkish Muslim), 나이지리아 무슬림(Nigerian Muslim)

29 Ibid., 180.

30 Ibid., 181.

등 각각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이슬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나라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무슬림이 된 것이다. 즉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양식이 각각의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최근 이렇게 다양한 무슬림의 정체성의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경우, 미국의 중동역사 전문가로 잘 알려진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2004년 한 독일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현재 나타나는 양상들로 보아 유럽은 21세기 끝에 다수의 무슬림(Moslem Majority) 국가가 될 것이며, 결국에 유럽은 서구아랍(Arab West)의 한 부분으로서 서구의 마그립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sup>32</sup> 더 나아가 온건파 무슬림 학자 바삼 티비(Bassam Tibi)는 말하기를 유럽이 이슬람화 되는 것과 동시에 이슬람 또한 유럽화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유럽인이 이슬람화 되었다는 것보다는 이슬람 즉 이슬람법 샤리아가 유럽의 상황 안에서 유럽 이슬람화(Euro-Islam), 즉 유럽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 한다.<sup>33</sup> 무슬림 공동체의 빠른 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 무슬림들은 유럽의 토착문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와 이질적인 유럽문화와 생활양식과 충돌을 일으켜 갈등을 보이는 부조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필립 제킨스(Philip Jenkins)는 이러한 유럽의 이슬람화 또는 이슬람의 유럽화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현재 비 이슬람 국가인 유럽에서 이슬람의 신앙은 더 넓은 의미의 종교적 상황화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슬람의 유럽화는 서구 유럽의 세속적인 사회질서와 무슬림들의 관계 안에서 무슬림들이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기 위해 변화하는 현상으로 무슬림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적응과 변화가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sup>34</sup>

그렇다면 한국의 무슬림들은 한국이라는 토착문화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리잡아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한국의 무슬림들도 다른 나라들 또는 특히 비 이슬람 국가인 유럽의 무슬림들처럼 한국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의 토착문화에 동화되거나,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한국 무슬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한국의 무슬림들은 유럽의 경우처럼 깊은 역사를 가지지 않았고, 한국

---

31 Jenkins Philip, *God's Continent* (N.Y.:Oxford University Press,2007), 124.

32 Ibid., 4.

33 Ibid.

34 Ibid., 2.

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사회 문제로 인식되거나, 다수의 무슬림들이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발전을 가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내의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와 동화와 부조화를 이루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최근까지 이러한 한국 무슬림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국내외적인 상황(무슬림국가에서의 한국인 납치사건 및 이주 무슬림의 한국 유입증가 등)과 맞물려 이슈가 되면서 한국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이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기존의 한국무슬림들이던지, 이주 무슬림이던지 이슬람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한국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이슬람이라는 문화와 종교를 실천하는 신념과 행위에 있어 그들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여, 한국사회와 동화되거나 부조화를 이루고 내부적으로 갈등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슬림들이 그들 나름대로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 한국사회에 동화되거나, 부조화를 이루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연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 2. 동화와 부조화를 경험하는 한국무슬림의 정체성

이슬람이라는 문화와 종교는 한국적 토양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중동의 사막에서 생성되어 각 나라로 전파되고 발전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슬람은 한국에 유입되어 새롭게 그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한국적 문화에서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이슬람의 역사』의 ‘한국 이슬람교 전망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국의 오랜 전통과 관습은 이슬람의 생활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고, 이슬람의 유일신 개념도 한국인들의 전통적 사상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점들을 선교에 활용하여 인내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국의 이슬람화는 상당히 그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인 김진규가 개종을 할 당시에 그의 개종은 당시 유교사회에 충격이 되었고 그들의 가족과 조상에 대한 배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연구물도 발견되며<sup>36</sup> 현재에도 외국인 이주 무슬림

35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35.

36 선유경 『Islam in Korea』 Ph.D. dissertation, Hartford Seminary. A.Y. Kim, 277. 재인용

들이 겪는 갈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슬람은 한국적 문화에 이질적인 양상을 가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무슬림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지배적인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문제는 결코 낙관적인 전망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Paul Hibert)는 한 사람, 또는 공동체가 그들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 또는 지배적인 문화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겪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접촉하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반응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의 분류를 살펴보면, 동화(Assimilation group), 혼합(Hybrid group), 부조화(Dissimilation group)로 나누고 있다.<sup>37</sup> 첫 번째 분류인 동화는 그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존의 그들의 문화를 새로운 지배문화에 맞게 변형시켜 빠르게 적응해가는 부류로서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류인 혼합그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첫 번째 그룹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새로운 지배문화에 적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지배문화를 부분적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자신들 고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룹을 말한다. 세 번째 그룹인 부조화 그룹은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배적인 새 문화에 결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고립하여 자신들의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sup>38</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비 무슬림국가의 무슬림들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류에서 특별히 한 부류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나라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공동체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수록, 이 세 가지 부류에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부류가 모두 함께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동화와 혼합, 부조화는 한국과 같은 비 이슬람국의 무슬림의 경우 표면적인 가치들 즉 언어, 전통 문화적 양식(베일착용, 음식문화)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내면적인 가치들 즉 신앙체계, 문화적 정체성, 세계관의 형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면에서 무슬림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반응에 따라 한국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 무슬림의 경우 그 역사가 비교적 짧고, 무슬림의 수적 증가도 최근 몇 년간 두

---

37 Hi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Grand Rapids: Baker Academy, 2008),253-255.

38 Ibid., 250.



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한국 무슬림으로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어 한국 문화내로 완전히 흡수된 동화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부조화의 단계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한국문화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가장 가시적인 동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전통의상의 착용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이 일상사회생활에서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무슬림들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통복장보다는 현대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sup>39</sup>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과 베일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sup>40</sup>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신촌, 이태원 같은 거리에서 베일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들의 베일 착용이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는다.

한국 무슬림들에 경우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즉 한국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없는 부분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할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하람)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이슬람의 전통이다. 특별히 한국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터부시한다. 그러나 공장이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경우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이 많고, 한국의 음주문화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갈등을 겪게 되는 예가 된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이후 2세대 무슬림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 세대의 알콜 섭취 문화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상황 속에서 이를 강하게 터부시 하고 무슬림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sup>41</sup>

무슬림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표면적인 가치들에 대한 동화작용과 부조화 작용보다는 내면적인 가치들에 대한 저항과 갈등이 더 심각하게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예배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를 꼽았다. 한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하

39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 2008, 53.

40 Frank, J Buijs & Jan Rath, "Muslim in Europe: The state of research" *IMISCOE WorkingPaper* (Amsterdam:UniversityAmsterdamPress,2002),24-25.

41 Jenkins Philip, 158.

루 2시간 분의 임금을 삭감당하기도 하여, 이러한 사건으로 한국 내 직장생활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수업이 있어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문화 안에서 겪는 부조화의 예로 들었다.<sup>42</sup> 또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기도 방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 대학의 경우 무슬림 학생들이 예배와 친교를 위한 작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미션스쿨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른 종교는 서클룸을 허용하면서 이슬람을 서클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돈을 내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 서클룸이 있다. 대학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였다.<sup>43</sup> 이와 반대로 포천이슬람센터에서는 금요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모여 집단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등, 무슬림들이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예배에 있어 한국문화에 동화를 보인 예도 있다.

한국문화 안에서 무슬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이다. 이슬람이라는 큰 지붕 안에서 무슬림들은 한국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한국문화와 이질적인 면들이 있으며, 한국에서 생성된 종교가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된 종교이며, 역사도 타국에 비해 길지 않다. 또한 한국무슬림들의 80%이상은 외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이주 무슬림들이다. 따라서 한국 무슬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한국적 틀 안에서 형성해나가는 것은 한국문화내로 동화되던지, 부조화를 이루던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슬림들에게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무슬림들이 한국문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정착하고 무슬림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정체성을 형성해,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V 맺음말

이슬람은 1400여년을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아랍의 사막에서 발흥된 이슬람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무슬림들은 이제 세계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

42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55.

43 Ibid., 58-59.

다. 아랍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흔하게 무슬림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들 무슬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며 살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큰 지붕아래 각 나라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그들 공동체가 살고 있는 문화에, 새 토양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슬람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비 이슬람 국가에서 2000년 들어 무슬림들의 수적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슬림의 수적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이웃 중에 무슬림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슬림들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쉽게 발견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슬림들이 생소하게 느껴졌던 비 이슬람국가 국민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슬람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무슬림 자신들에게도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무슬림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확장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그들의 공동체를 움마(Ummah)라 부르는데, 이러한 움마, 무슬림 공동체는 세계 전역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원리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슬람의 법 샤리아(Sharia)가 실행될 수 있는 곳 즉 이슬람의 영토(Dar al-Islam)와 무슬림이 살아갈 수 없는 곳, 이슬람법이 실행될 수 없어 정복해야 하고, 없어야 할 영토(Dar al-harb)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슬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다르 알- 이슬람 즉 이슬람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또는 비 이슬람 국가들은 세속주의 국가들이고, 분명히 이슬람법이 국가의 법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다르 알 함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경계는 세계화의 빠른 움직임 속에서 무슬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슬림들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세계로 그들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면서, 다르 알-이슬람과 다르 알-함의 분명한 경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고,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비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

44 David, Shenk W. *Journeys of the Muslim Nation and the Christian Church exploring the mission of two communities*. (Ontario: Herald Press, 2003), 226. ;L.Poston. *Islamic Da'wah in the West: Muslim Missionary Activity and the Dynamics of Conversion to Islam*.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32-35.

무슬림들은 비 이슬람국가에서 다와<sup>45</sup> 활동을 통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 새로운 문화 안에서, 새롭게 해석한 이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거나 부조화를 일으켜 갈등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슬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이슬람화의 영향은 현재 한국에서도 그 다양한 시도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15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들을 한국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땅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단기적이던지, 장기적이던지, 그들 공동체를 확장시켜나갈 것이다. 무슬림 이주가 한국에 시작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문화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사회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양상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무슬림들이 한국에 소수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수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해가는 이들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만든다. 이제 먼 나라의 무슬림이 아닌 우리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깊은 관심과 이해가 더욱 깊이 있게 요구되고 있다.

---

45 아랍어 다와(da'wah)는 '부름'과 '초청(혹은초대)을 의미한다. '부르다'는 뜻을 가진 동사 다아(da'a)에서 파생되었고, 다이(da'i)는 '부르는 혹은 초청하는 사람' 혹은 '선교사를 의미한다. Fredrich Mathewson Denny, "Da'wah", ed. by Lindsay Jones, Encyclopedia of Religion, Vol.4, (Detroit: Macmillan, 2005), 2225-2226. 안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 연구-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제50집, 2008, 222. 재인용

## **Abstract**

### **Islam in Korea**

Kwon, JeeYun

Since Islam passed through about 1400 years, the religion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Nowadays, it is easy to confront the Muslim in anywhere. The muslim has extended by creating its unique culture and history, which they established in the desert of the Islamic area. We are able to meet the Muslim in many places including, not only the Arab, but also Asia, Europe, and America.

Even though the Muslim are in all over the world, it is easy to observe that they are grouping together and sharing their own religion firmly. They have built a unique community and accommodate a new place with their Islamic culture and identity. They keep their identity by placing themselves under one roof, named Islam by helping each others in several way, nevertheless they live in different places or countries. It is a mix of the religion and the community in new places in where there exist different culture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a growth rate of the Muslim population has increased since the year of 2000 in non-Islamic countries such as Asia, Europe, and America. Those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Islam in terms of religion, personality, food, culture, history, and so on.

Korea, which is a non-Islamic country, is not an exception. Recently, the numbers of Muslim population has risen in Korea. In other words, it is easier to meet the Muslim in our neighbors and our streets. The Muslim are no longer foreigners, who visit and leave us, but they are the neighbors. They are living with us.

This matter can be challenge for people of non-Islam country, who do not know or are not familiar of the Muslim and its culture. In contrast, it can be a problem for the Muslim who are try to settle down in a foreign country as well.

In fact,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of the Muslim who are immigrated to Korea had settled down without serious problems or depressions, since the immigration of the Muslim in Korea stemmed from 1950s. Since 1990s, large number of immigrated Muslim have moved into the Korean-Muslim community while the financial and social developments of Korean society are generated. Thus, there

are an approximately 150,000 Muslim people currently.

This change in the Korean-Muslim community is an important reason that the community became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mono-cultural one. Furthermore, they have confronted several cultural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immigration and settlement in Korea.

In other words, the Muslim have experienced assimilation and dissimulation with the Korea society while they have formed the identity of their unique culture after they moved to Korea.

However,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that the Muslim is not disappeared in this different culture. They have settled down well in Korea. What is more, the Muslim keep trying to send their messages to their newly formed community, those messages are interpreted into new culture, and are based the identity of Islam in different countries. Their efforts and activities are aimed to develop the Korean-Muslim community.

However, there are some complications while two cultures are assimilated or dissimulated. The Muslim are trying to build new Islamic culture, which are away from traditional Islamic culture.

So to speak, this new influence from Islam will effect us in various ways. Now, there are 150,000 people who are Muslim in all over Korea. They will expand their community in a short or a long period by living as our neighbours in our land.

As a result, Korea is explained as a multi-cultural country. In other words, Korea should not be considered a country who has a only one cultural background since a lots of the Muslim have immigrated to Korea. It should be realized that it is a rapid cultural change and a mix.

This change represents the Muslim to inflow into Korea by a large number of population. They are no longer a minor group. They have become a group of people who can influence to a whole of Korean society in a variety of ways.

There is a need of the profound care and understanding that Korean churches has to establish for the Muslim who became our neighbours. They are no longer a foreigner that we feel they are far from us. They are people whom we should live with in our country and we should share our lives by adapting different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 참고문헌

- 김영남, “이주 무슬림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선교적 고찰” 『이슬람 선교포럼』 한국선교신학회, 2009.
- \_\_\_\_\_, “일본의 이슬람”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이슬람 연구 4권, 한국이슬람 연구소, 안산,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 연구-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0집
-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 2008.
- 조희선, 김대성 외3명,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27권 2호, 2008
- 조희선, 김대성 외 3,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 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한국이슬람 학회 논총』, 제 18-1집, 2008.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Islam in Korea』. 서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8.
- Al-Faruqi, Isameil. *On Arabism: Urubah and Religion*. Amsterdam, Holland: Djambata, 1962.
- Alsayyad, N. & M. Castells (eds.) *Muslim Europe or Euro-Islam. Politics, Culture, and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7.
- Armour, Rollin, Sr. *Islam, Christianity and the West: A Troubled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 Daniel, Norman. *Islam and the West*, 1<sup>st</sup> ed. Edinburgh, Scotland: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Islam and the Wes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Denny, Frederic Mathewson. *An Introduction to Islam*. New York : Macmillan, 1985.
- Esposito, J.L. (1999) *The Islamic Threat. Myth or Reality?*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Paul G, Hibert. *Transforming Worldviews*. Grand Rapids: Baker Academy, 2008.
- Kim, A.Y. *The Muslim Presence in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Evangelical Missiology*. a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ugust 2003.
-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God's Contin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Jorgen S. Nielsen, “Muslim in Europ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hristian Muslim encounter*, ed. Yvonne
- Hans, Küng. *Islam and the Wes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Lewis, B, *Europe and Islam*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2007.

Nielsen, J.S. *Islamic law, its significance for the situation of Muslim minorities in Europe*. Brussels: Church Committee of Migrants in Europe, 1987.

Poston, L. *Islamic Da`wah in the West: Muslim Missionary Activity and the Dynamics of Conversion to Isl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Shenk, W. David. *Journeys of the Muslim Nation and the Christian Church exploring the mission of two communities*. Ontario: Herald Press, 2003.

Frank, J Buijs & Jan Rath, "Muslim in Europe: The state of research" *IMISCOE Working Paper* Amsterdam: University Amsterdam Press, (Oct 2002): 1-29.